

영화 ‘타이타닉’ 과 ‘스캔들’ 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의 고전과 그 변용

사랑만큼 인간을 변함없이 사로잡은 테마가 있을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이브를 탄생시켜 에덴동산에서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성서>, 질투와 짝사랑, 그리고 이뤄질 수 없는 자기에 등 사랑에서 생기는 많은 모티프의 원형으로 가득한 <그리스·로마 신화>, 그리고 바보 온달 왕자를 사랑의 힘으로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낙랑공주의 이야기 등이 담긴 <삼국유사>. 역사의 고전에는 어디에나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날 정도로 풍부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랑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찾는다. 그리고 언제나 다시 사랑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다를까? 그렇지 않다. SF영화, 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서도 사랑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프이다. <매트릭스>만 봐도 그렇다. 궁극적으로 모든 갈등과 위기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 이지 않은가. 이처럼 ‘사랑’은 인류 최대의 난제이자 영원한 테마인 것이다.

글 / 배주영 서경대학교 강사

사랑이라는 인류 영원의 테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랑이 존재하는데 ‘보편적’ 사랑이 존재하는가? 어떤 고전을 보아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혹은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랑’ 콘텐츠를 만드

는가 하는 점이다. 롤랑바르트는 “사랑은 언제나 외로운 처지에 놓여왔다”고 말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단순히 어떤 증세가 있는 환자처럼 취급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사랑이 어떤 말들로 돼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했다(롤랑바르트, 『사랑의 단상』, 김화영 역, 문학과 지성).

사랑은 열병?

사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사랑에는 전문가이면서 초보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열병”이라고 해, 마치 병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모든 사랑은 ‘개인적’이다. 그러나 ‘개인적’이지만 누구나 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사랑으로 가슴 아픈 스토리 등에



서 그 이야기 가치(Story Value)를 높이는 다양한 요소 중, 불변의 원칙은 ‘부재(absence)’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내가 홀로 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야기에 변하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이다. 괴테의 사랑 이야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자. 그녀는 눈앞에 있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 이상,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부재’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이 ‘부재’는 실제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 혹은 그녀가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죽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필수록 사랑 애절해지고, 사랑의 감정은 더욱 심해지기만 한다. ‘이뤄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이 됐을 때, 우리 모두는 사랑의 콘텐츠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이 고전이 어떻게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랑의 텍스트로 활용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사랑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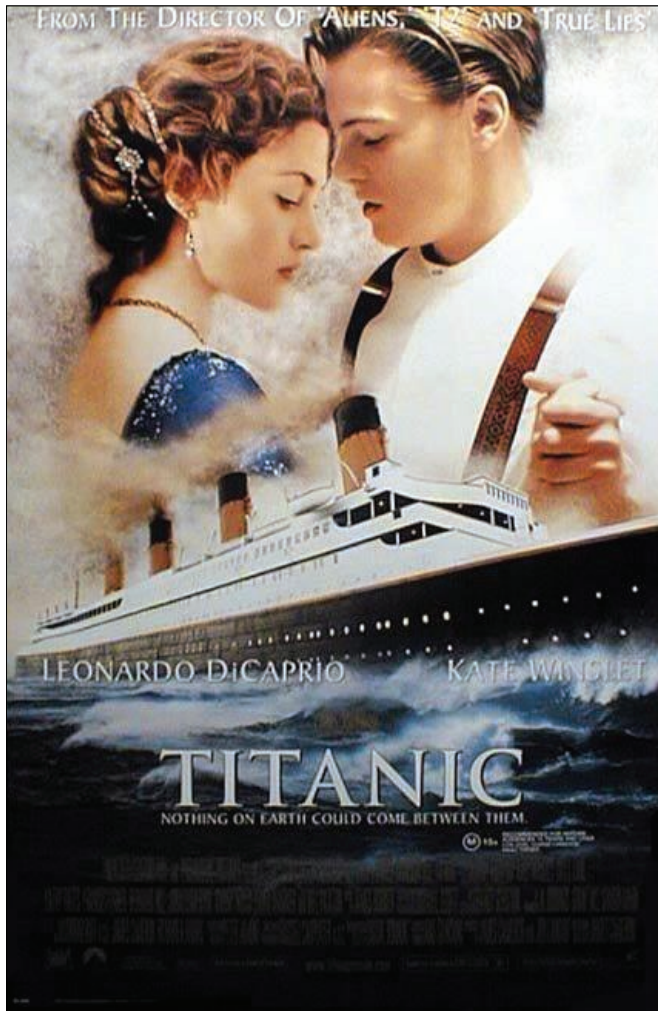
<로미오와 줄리엣>은 둘 사이의 ‘부재’를 다양한 갈등요소로 활용한 사랑의 명작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집안’, ‘가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집안 사이의 오래된 갈등과 반목으로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이이다. 그러나 이 둘이 우연히 눈을 마주친 순간,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때부터 이들의 고통은 시작된다. 오래된 원수 관계인 두 집안은 철없는 이 둘의 사랑을 필사적으로 막게 된다. 로미오가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 줄리엣의 집안 사람을 죽이고, 그는 추방당하게 된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줄리엣이 신부의 도움으로 약을 먹고 가사 상태의 수면에 취해져 있는 순간,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로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자살을 한다.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도 이를 보고 역시 죽음을 택한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역시 ‘사랑’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것이다. 집안이나 사랑이냐는 조금 추상적인 가치로 바뀌보면, 가족과의 사랑이냐 애인과의 사랑이냐로 바꿀 수 있다. 즉 우정, 가족애 등과 사랑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 대비를 통해서 둘의 사랑은 한층 더 순수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또 더 나아가 ‘집안의 명예냐, 사랑이냐’라는 선택 역시 놓여진다. 여기서 명예는 줄



리엣의 경우 ‘집안의 명예’로 나오지만, 로미오의 경우 친구의 죽음에 복수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도 등장한다.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한 둘의 사랑은 사랑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만나 허무하게 무너진다.

모든 갈등을 초월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사랑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 스토리의 핵심은 갖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의 갈등을 통해서 성취되는 순수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가지 모티프를 이용해 잘 보여준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은 언제나 흥미를 유발한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욕망들을 이용해 스토리를 구성했다. 특히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난제와 사랑을 마주 보게 한 것이 결국 이 작품을 사랑의 영원한 고전으로 만든 이유이며, 아직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변용된 작품



타이타닉(Titanic)

감독: 제임스 카메론
 출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국가: 미국(폭스 1997)

들을 낳는 이유일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랑 <타이타닉>

<로미오와 줄리엣> 모티프는 응용 이전에 원전 자체가 다양하게 영화화 됐다. 올리비아 허쉬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연인이 됐던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1996년 바즈루어만 감독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이외에, 1908년 마리오 카세리니 감독, 폴 팬저와 플로렌스 로렌스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근 12편 이상이 이 원작을 영화화 했다. 그 만큼 이 작품은 변함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같은 제목을 단 것

이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타이타닉>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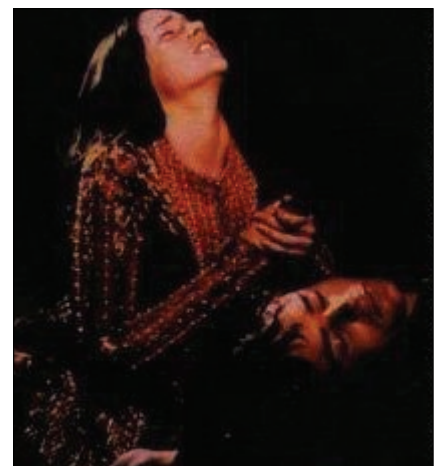
70여년 전, 17세 소녀 로즈(Rose DeWitt Bukater : 케이트 윈슬렛 분)는 사교적인 어머니(Ruth DeWitt Bukater: 프랜시스 피셔 분)의 강요로 귀족 집안의 망나니 아들과 결혼을 앞두고 타이타닉에 승선한다. 한편, 배가 출발하기 바로 전 도박으로 3등석 자리표를 얻은 청년 잭(Jack Dawson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도 친구와 함께 3등석에 승선한다. 엄격한 규율과 예절을 요구하는 상류 사회에 숨막혀 하던 로즈는 결혼을 비판, 배 맨 끝에서 자살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연히 이를 본 잭이 로즈를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돼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림을 그리는 잭의 자유로운 영혼에 그만 사랑에 빠진 로즈. 잭은 로즈의 제안으로 결혼 예물로 받을 목걸이만을 건, 나체화를 그려주게 되고, 두 사람은 깊은 사이로 발전한다. 그러나 둘의 사랑도 잠시,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잭의 도움으로 로즈만은 목숨을 건지고, 잭은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타이타닉>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집안의 갈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두 집안의 갈등을 신분의 차이로 설정했다. 명예와 사랑의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과 사랑 사이의 갈등이라는 기본 갈등을 타이타닉 호로 그대로 옮겨놓은 설정이라고 하겠다. 이루어질 수 없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여러 사람들이 갈등으로 막는다는 설정, 그리고 각각의 욕망 충돌이라는 점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는 죽음도 불사하고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인공 잭(로미오)과 로즈에게 사랑과 삶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스토리 밸류를 높인다. 또한 가문의 명예와 사랑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등을 스토리는 부과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는 남녀 주인공 둘 다에게 이런 과제를 부과하지만, <타이타닉>에서는 줄리엣에게만 이것을 부과하는 한편, 사랑과 돈 중 선택하게 하는 과제를 다시 부과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강도를 높인다.

사랑이나 돈이나?

스토리의 시작점에서 로즈는 돈, 명예, 영생을 가지고 있다. 로즈가 삶,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 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즉 전환점 1의 순간, 그녀는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나 죽으려다 살아난 그녀의 경우 영생 지수가 높아지면서, 돈과 명예를 가지고자 하는 욕망 지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분과 계급 차이를 통해 그녀는 사랑을 선택하려면, 돈과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갈등이 영화에서는 3등 객실과 1등객실 사이의 차이로 드러난다. 돈이나 사랑 이냐의 갈등은 국가마다, 혹은 문화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역시 많은 변환을 가져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랑의 갈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티프이다. <금색야차>를 원안으로 하는 <장한몽>을 계속적으로 변환시켜 온 “사랑보다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리도 좋더냐”라는 말은 꽤 오랫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온 대사인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 갈등은 가문,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에는 ‘돈’이라는 가치로 환원돼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녀가 돈과 영생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다시 영생에 대한 위협은 다가오고, 이 위협을 극복하는 순간, 그녀는 사랑을 잃게 된다. 이러한 모티프는 사랑 성취형 스토리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 스토리의 경우 명예, 돈, 영생이라는 욕망이 각각 복합적으로 곡선을 그리도록 서사가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스토리의 경우는 두 개 정도의 욕망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랑지수를 표시하는 선 이외의

선과 사랑은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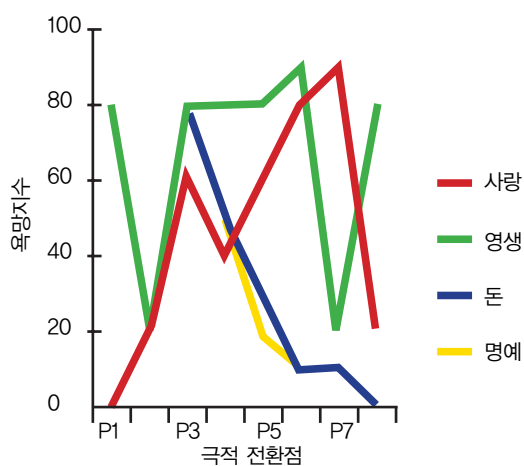
이러한 서사의 전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극적 전환점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단지 <타이타닉>은 시련을 극대화하고 다각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시련의 중심으로 놓아 사랑의 비극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분의 차이, 약혼자 존재(시차적으로 먼저 이루기로 한 사랑), 공간적 위기의 세 가지 위기를 통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의 절대성 강조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신분의 차이만을 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형시킨 것으로는 <귀여운 여인>, <위대한 유산>, <춘희> 등도 들 수 있다 우리의 고전 <춘향전>이 계속적으로 회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이뤄질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바로 계속적으로 영화화되고 변형되면서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후대로 올수록 이 작품들은 시대에 맞게 변화한다. 외부적 갈등보다는 내면적 갈등이 커지는 것이 그 특징중 하나이다. 문제는 누군가가 막아서, 신분이 막아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라는 점. 이것이 점점 강조되는 것이 고전이 변용되는 방향이다.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사랑이란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에는 늘 고전이 놓여 있는 것이다.

로미오만 줄리엣을 사랑했다면?

스토리상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의 원인이 꼭 돈, 명예, 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것들은 스토리 전개상 갈등 형성 요인 중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들은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 이는 둘이 첫눈에 사랑에 빠졌으며, 이를 위해 목숨까지 무릅쓰겠다는 설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둘이 만약 집안 사이의 갈등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둘의 사랑에 확신을 가졌을까? 그것은 다른 한편 생각해봐야 할 요소이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이다. 모든 사랑이 다 그렇듯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둘 사이의 ‘타이밍’의 문제이다. 현대의 콘텐츠에서는 사랑의 장애요소를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즉 ‘타이밍’의 문제로 변환시킨다. 자 아무런 갈등도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이다. 이들의 장애요소는 전자와는 달리 자신들 내면의 자존심과 사랑이다.

남, 여 그 둘의 미묘한 감정 다툼-타이밍

해리와 샬리는 뉴욕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다. 해리는 법률



- P1. 스토리의 시작
- P2. 로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살하려고 함
- P3. 잭이 구해주면서 첫눈에 반하게 됨
- P4. 잭과 로즈 사이의 계급 차이 각성
- P5.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랑 확인
- P6. 로즈가 사랑으로 구출
- P7. 타이타닉 호 침몰(둘 모두의 영생 위협)
- P8. 잭이 로즈를 위해 희생

<그래프 1>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

원제: When Harry Met Sally
 감독: 로브 라이너
 배우: 빌리크리스탈, 맥 라이언, 캐리피셔, 스티븐 포드
 제작: 미국(1989) 폭스사

고문이고 샬리는 저널리스트의 꿈을 가진 여자이다. 이 둘은 '과연 여자와 남자는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헤어진다. 그러던 그들은 5년후 뉴욕 공항에서 다시 한 번 만나게 되지만 이때도 곧 헤어지게 된다. 다시 5년 후에 우연히 서점에서 둘은 만나게 된다. 해리는 이혼하게 됐고, 샬리는 노처녀의 상황이었다. 이 둘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애뜻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한편 샬리는 전 애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라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해리는 그녀를 위로하려 그녀의 집에 가게 된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던 그 둘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스토리의 핵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둘의 감정 지수 변화이다.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적인 구도로 이뤄진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둘 사이의 만남과 사랑까지의 짧은 기간을 확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다. 둘은 우연히 만나고, 감정적으로 다툰다. 싸우면서 둘은 정이 들게 되고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헤어진다. 다시 만나서,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넘지만, 결국 그 둘이 서로를 친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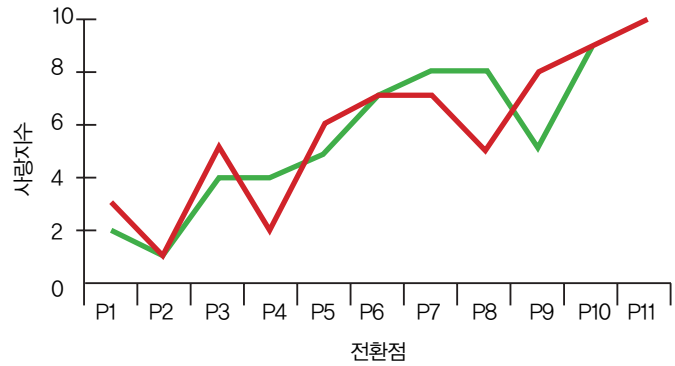
주체와 서술체 구성

S1: 해리 S2 샬리
 V1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V2 싸우다 V3 사랑하다. V4 이별하다.

극적 전환점과 감정 지수의 변화

- P1. 해리와 샬리가 우연히 만나 싸우다.
- P2. 해리와 샬리가 우정을 느낀다.
- P3. 헤어지다.
- P4. 우연히 만나다.
- P5. 헤어지다
- P6. 우정을 느끼며 서로 좋아하게 되는 감정을 가지다.
- P7. 해리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다.
- P8. 육체적으로 사랑하다
- P9. 샬리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다.
- P10. 싸우고 헤어지다.
- P11.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다.

로맨틱 코미디 사랑지수변화(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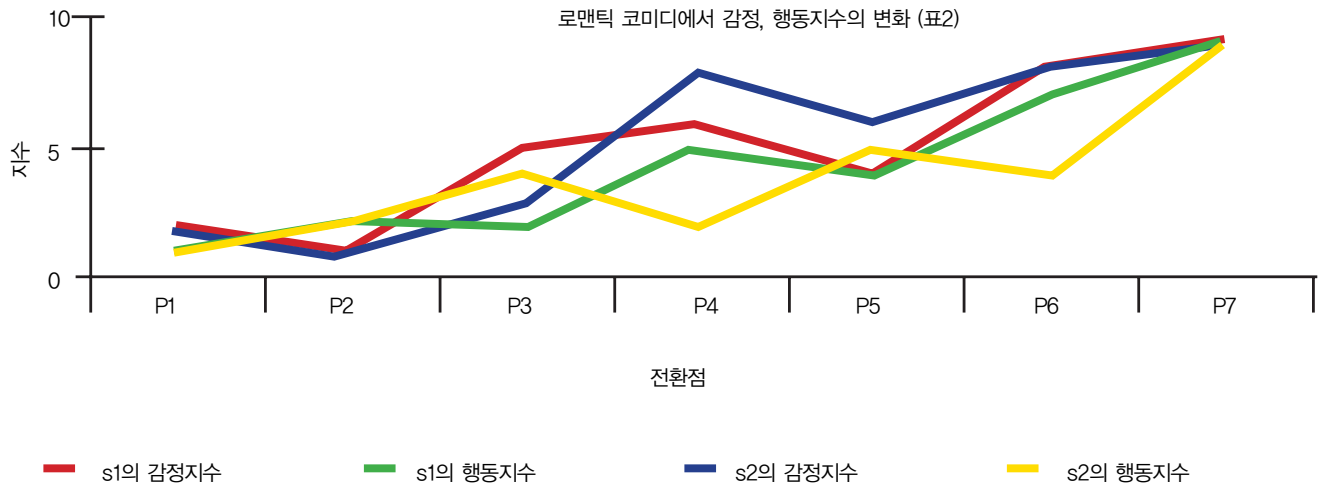
<그래프 2>

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 엇갈리면서 감정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

<로맨틱 코미디>의 원형 : 감정과 행동의 엇갈림

이러한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감정지수의 엇갈림과 행동지수의 엇갈림이다. 또한 감정지수만큼 행동지수가 따라와 주지 않는 것이 관객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스토리 밸류의 핵심이다. 즉 둘의 감정지수, 행동지수, 수치의 엇갈림이 전체 서사의 핵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능한 발화체(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스토리를 진행함으로 해서, 주제의식을 심화시켜 스토리밸류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 1>에서 알 수 있듯 주체의 두 감정 곡선은 교차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한 명의 감정지수가 높을 때 다른 한명의 감정지수가 낮으므로, 둘의 사랑은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P10에서 둘의 감정이 확인된 순간, 감정지수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스토리는 막을 내린다. 특히 두 주체의 감정지수와 행동지수의 불일치가 스토리 전개에 스토리밸류를 높여준다. 또한 섬세한 감정의 묘사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주인공이 <해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와 달리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 한 쪽에 있을 때는 두 곡선이 정확하게 정반대를 이루면서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프 2>에서 보면, 감정지수와 행동지수가 엇갈리는 가운데, S1이나 S2 중 한명의 행동지수가 높아지는 순간 둘은 감정을 확인하게 된다. 감정지수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둘의 행동지수를 낮게 설정함으로 해서, 스토리 전개 상 관객에게 그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심리가 생기게 하고, 이를 통해 스토리밸류가 높아진다. 즉 두 주체 감정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둘의 감정지수와 행동지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스토리밸류는 높아지게 된다.



〈그래프 3〉

로맨틱 코미디의 경우, 두 주체 중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형식의 스토리가 생성되기도 한다. 혹은 남녀 중 어느 쪽을 주인공으로 하는가. 혹은 두 주체의 감정지수와 행동지수의 차를 크게 할 수록, 그리고 감정지수가 높음에도 행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원인 설정이 무엇인가에 따라 스토리밸류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한국의 많은 로맨틱 코미디는 이 도식을 많은 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타이밍과 밀고 당기기가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성공하지 못하거나 상투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리가 셸리를 만났을 때>는 이들의 감정 변화와 엇갈림 자체가 각각 인물의 상황과 내면에 있어 사랑으로 이뤄지는 둘의 과정이 잘 드러난다. 반면 실패한 로맨틱 코미디는 둘의 엇갈림이 우연으로 계속되기도 하고, 사건으로 계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둘의 감정 문제, 타이밍의 엇갈림이라는 상황의 설득력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엇갈리는 타이밍은 사실 게임화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다. 많은 연애 게임들이 연애 게임을 '공주만들기' 이상으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에서의 복잡 다단한 여러 곡선을 어떻게 상호커뮤니케이션 속에 넣는가 실상 연애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행동과 감정의 분리가 연애의 핵심인데, 완결

된 콘텐츠가 아니라 참여도에 의해 스토리가 결정되는 연애게임의 경우 감정과 행동의 분리가 캐릭터에서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랑에 대한 것만큼의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캐릭터의 감정, 그리고 상대 캐릭터에 대한 행동, 이들의 지수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외부적인 요소 이외의 상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애게임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로미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다면?

그렇다면 '타이밍' 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혹시 둘이 첫눈에는 반해서 도망쳤는데, 로미오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한다면’이라는 문제이다. 만약 이 둘이 비극적 죽음을 맞지 않았다고 해도 둘이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랑하면서 살았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해 변형돼 나온 것이 바로 ‘카사노바’이다. ‘카사노바’란 한 남자가 다양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는 그가 단순히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라기 보다는 영원함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도 변하고, 이 변화하는 중에 사람의 마음과 사랑도 변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게 되는 스토리 역시 사랑에 관한 고전 스토리 중 하나이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한 영화 <스캔들>을 살펴보자.

육체적 사랑 vs 정신적 사랑

‘카사노바’가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카사노바가 감화, 감동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이다. 카사노바의 경우 감정지수보다는 행동지수가 높은 형의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지수와 행동지수의 변화가 관객에게 재미를 준다. 이 경우 만드는 사람은 ① 이 지수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② 이 지수 변화의 타이밍을 서사

스캔들-조선 남녀 상열지사

감독 이재용
 배우 이미숙, 전도연, 배웅준, 조현재, 이소연
 제작국 한국(2003)
 각본: 이재용, 김대우, 김현정
 비고: 쇼데르로스 드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가 원작.
 밀로서 포먼의 <발몽>, 스티븐 프리어즈의 <위험한 관계>, 로저 컴블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줄거리

1. 작업 전야 - 선수들, 서로를 알아 보다

겉으로는 세도가의 정부인으로 살아가며 남자들을 유혹하는 이중 생활을 영위하는 조씨 부인. 한편, 과거에 급제했으나 관직을 마다한 채, 못 여인에 탐닉하고 시/서/화를 즐기는 이단아 조원. 말 못 할 첫 사랑의 상대이자 사촌 지간인 둘은 은밀한 사랑 게임의 동업자다.

2. 작업 개시 - 바람둥이, 요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다

어느 날 조씨 부인은 남편의 소실 자리인 어린 소옥을 범해줄 것을 조원에게 제시하지만 조원의 목표는 9년간 수절해 열녀문까지 하사 받은 숙부인 정씨로 정해진 상황! 조씨 부인은 조원이 성공하면 자신을 허하겠다는 미끼를 던지고 조원은 내기를 수락한다

3.작업 진행 - 고생 끝 열매가 더 달다고 그 누가 말했는가?

갈고 닦은 실력과 술수를 총동원해 숙부인 유혹 작업에 나선 조원. 하지만, 나라에서 금한 천주학을 접하고 서민을 돕는 등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숙부인의 저항은 예상 외로 완강하고, 그럴수록 조원의 전의는 더욱 불타 오른다. 한편 소옥은 우연히 마주친 옆집 도령 권인호와 사랑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둘은 사랑하지만, 권도령은 조씨부인과 육체적 관계를 소옥은 조원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만다.

4. 작업 성공

길을 잃고 헤매던 숙부인은 조원에게 도움을 받은 이후로 마음을 조금씩 연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갈등하는 숙부인은 강화로 내려가고, 이에 조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해 숙부인의 마음과 몸을 얻는데 성공한다.

5. 시련

조원이 숙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본 조씨 부인은 질투를 해 숙부인의 신변을 위협한다. 이에 조원은 숙부인에게 매물찬 이별을 선언하고 시름에 잠긴다. 조원에 매물찬 태도에 조씨부인은, 소옥을 가장해 권도령에게 편지를 써, 조원이 소옥의 몸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에 화가난 권도령은 숙부인을 사모하고 있던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투서로 보낸다.

6. 결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화가나 조원을 찢러 죽이고, 숙부인을 찾아가던 조원은 결국 숨을 거둔다. 조원의 죽음을 알게 된 숙부인 역시 자살한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작은 놈이가 이를 책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조씨부인의 악행은 세상에 공개되고, 조씨부인은 연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쓸쓸히 조원을 그리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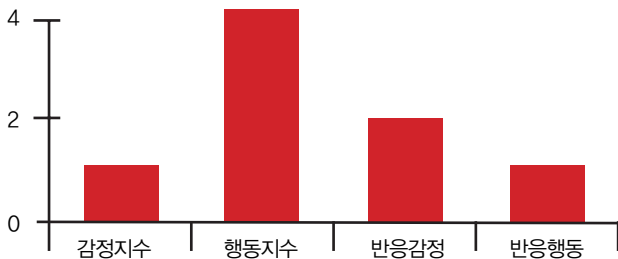
전체 중 어디에 둘 것인가에서 영화의 재미를 찾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카사노바를 징벌하는 형태의 영화이다. 이 경우 영화는 교훈적인 효과를 주면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 관객은 벌받는 카사노바를 보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영화의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코미디가 될 수도 있고, 장르물이 될 수도 있다.

카사노바의 행동 변화를 보면, 그 핵심은 감정과 행동으로 일단 나누어지고, 상대에 대한 육체적 관심과 정신적 관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카사노바는 감정보다는 행동이 빠르게 나타난다. <스캔들>의 조원을 보자. 그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목표를 정하면 일단 접근하고 보는 스타일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감정지수에 비해 행동지수가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에 대한 반응은 현저히 느린 편이거나 무심한 편이어서 상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면 카사노바의 사랑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행동이 앞서던 그의 사랑에서 행동지수가 낮아지고, 자신의 감정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일단 그 변화의 시작이다. 다른 한편 상대에 대한 반응지수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 변화의 시작이다 <스캔들>의 조원은 원래 어린시절 사촌누이를 사랑했고, 그로 인한 실패로 마음을 닫고 이 여자 저 여자를 탐닉하며 지냈다. 그러던 그녀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숙부인을 보고, 그녀를 정복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서 그녀를 유혹해가는데, 유혹을 더해가면 갈수록 숙부인의 순수함에 조원은 빠지게 된다. 그리해 이 카사노바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을 이루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반면 카사노바가 실패하는 경우는 단순 하강의 스토리 진행을 갖는다. 전반적으로 유혹과 성공을 거듭하다,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징벌을 당하게

카사노바 사랑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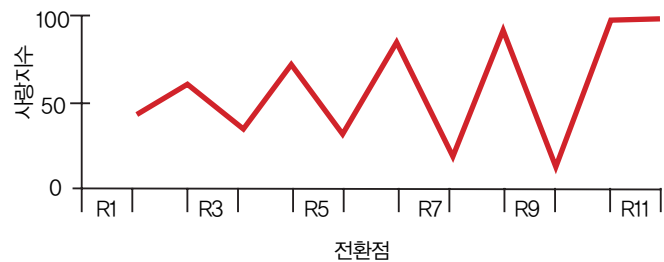


<그래프 4>



나, 복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카사노바 실패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다.

카사노바 성공



- P1. 출발점
- P2. 사랑 성취 대상의 제공,
- P3. 유혹-상대의 육체적 반응을 유도(첫눈에의 끌림 유도)
- P4. 좌절
- P5. 유혹-상대의 정신적 반응 유도(정신적 동지임을 강조)
- P6. 좌절
- P7. 유혹-위기에서 구출(거절할 수 없는 구실 제공)
- P8. 좌절
- P9. 유혹-자신의 죽음, 좌절로 유혹(동정심 유발, 진실성 증명)
- P10. 유혹의 성공
- P11. 사랑에 빠짐
- P12. 위기
- P13. 죽음으로 사랑 증명

<그래프 5> 극적 전환점과 카사노바(조원)의 사랑 지수 변화

이는 조씨부인을 보면 잘 드러나는데, 조씨부인이 유혹을 거둬 하면서 사랑을 기만한 죄로, 스토리에서 그녀는 벌을 받고 멀리 타국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 즉 사랑의 법칙에 어긋난 죄로 서사에서는 징벌당한다.

이 두 명의 카사노바의 스토리를 겹쳐놓은 <스캔들>은 그런 점에서 사랑 스토리의 여러 가지 원형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순수한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사랑을 구분해 인물을 설정하고, 그 인물들의 갈등을 긴박하게 전개해 나아간 것은 고전을 복합적으로 전개한 스토리텔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영화의 마지막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고전적 대결, 즉 죽음과 사랑, 죽음과 맞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조원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알게 된 숙부인의 자살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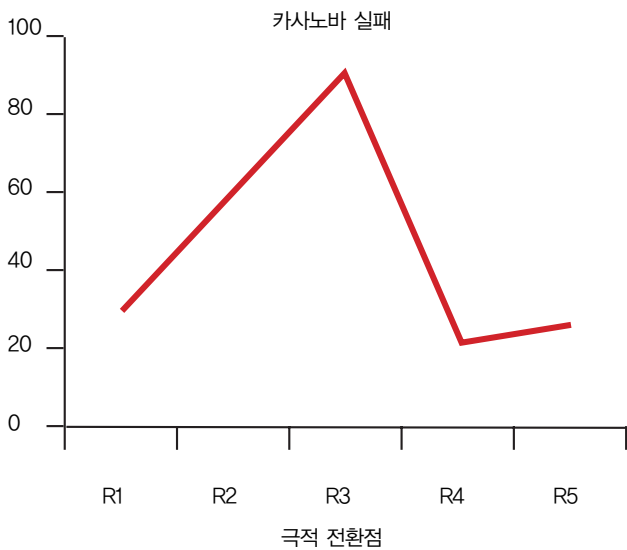
결국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동화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이 나오기 힘든 것은 결국 인간은 다 죽는 존재이고, 그렇게 죽는다면 사랑도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콘텐츠들은 그런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들은 죽어서 사랑을 영원히 간직했습니다'라는 말로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 스토리텔링,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출발하라

사랑은 모든 인류의 과제이자 숙제이다. 모든 개개인이 각각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원형이나 고전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복되는 이야기들은 있다. 그것은 고전이 이제까지 읽히는 힘이고, 이제까지 감동을 주는 힘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이 고전은 사랑에 관한 스토리텔링에 하나의 고전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스토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변화, 감정의 변화 곡선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박한 세상, 특히 물질이 중요한 이 현대사회에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우리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해도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모른다.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 사랑이 스토리 한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 고루한 것 같은 그러나 절대 고루하지 않은 사랑 이야기들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 고전 속에는 사람 마음을 꿰뚫는 변하지 않는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프 6>